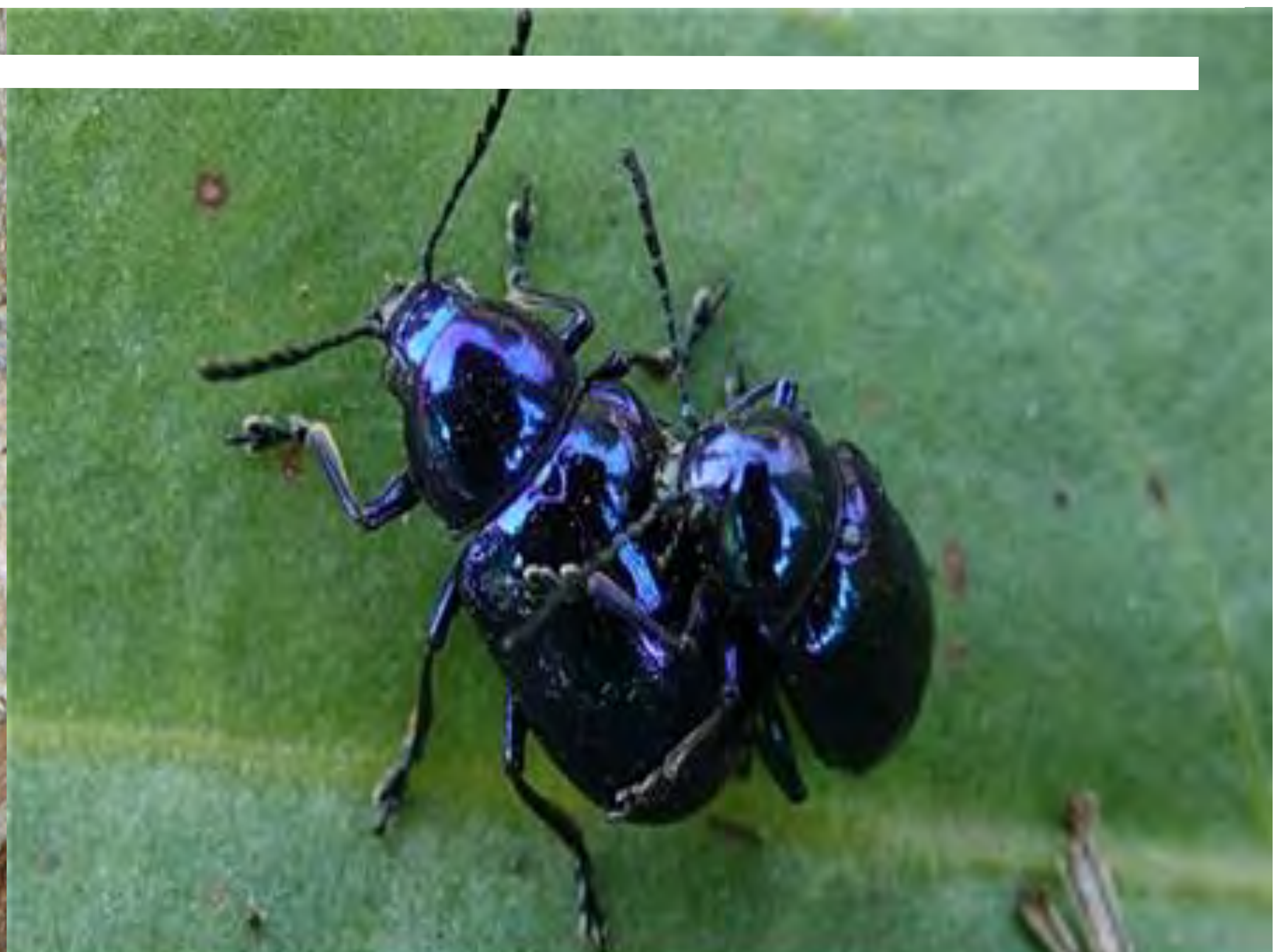




고양시 하천 친구들 곤충편 (1)





고양시하천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을까요 ??



산호랑나비



호랑나비와 매우 닮았으나 앞날개의 밑부분이 옅은 검정색으로 검은 줄무늬가 없고 대체로 노란색이 강합니다.
5~6월, 7~8월에 연 2회 나타나며
평지나 고지의 정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기슭이나 하천가에 있는 풀밭이나 자갈밭에 서식합니다. 주행성으로 낮에 활동이 활발하며 주된 먹이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중이와 비슷하나 콩중이보다 몸이 작고 암컷의 앞가슴에 있는 세로융기선이 얇습니다.

영국청람색
잎벌레



몸은 매우 통통한 편이며 몸빛깔은 검은색인데,
보라색이나 남색의 광택이 강합니다.
주로 6월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고구마잎과 같은 넓은 잎을 먹으며 삽니다.

칠성 무당벌레



이른 봄에서 가을까지 볼 수 있으나 6월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무당벌레류 중에서 가장 흔한 종입니다. 위협이 닥쳐오면 갑자기 땅에 떨어져 꼼짝하지 않고 죽은 척을 합니다. 그래도 적이 자기 몸을 건드리면 다리 관절 사이에서 냄새가 고약하고 쓴맛이 나는 액체를 뱉어 내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두눈박이 쌍살벌



4~8월 사이에 볼 수 있으며 나비, 나방의 애벌레를 먹습니다. 가슴 배마디의 황색의 가로줄이 많습니다. 날개는 적갈색, 다리는 황갈색, 몸은 검은색의 벌입니다.



모니터링 참여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더불어성사천
어린이식물연구회
에코코리아
하천생태동아리



- 2019년 고양시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



고양하천네트워크